

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

2022. 11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

목 차

1. 2022년 도쿄 지속가능한 수산물 정상회담(TSSS) 개최 3
2. 일본 수산청 사카나 데이(Sakana Dday) 지정 4
3. 최신 수산물 가격 책정 데이터, 중국 소비 감소 시사 5
4. 전기차 배터리 갑각류 부산물로 충전 가능할 듯 6

□ 수산물 공급 사슬의 인권과 노동권에 초점 맞춘 논의

- 2022년 도쿄 지속가능한 수산물 정상회담(TSSS*)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됨
 - * Tokyo Sustainable Seafood Summit
- 본 행사는 수산물 공급사슬의 인권에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, 수산물 공급사슬의 노동권 및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진행 됨
- 수산물윤리행동동맹(Seafood Ethics Action Alliance) 의장 Andy Hickman은 국제 협력과 기업 실사(due diligence)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음
 - 그는 상업 어업의 위험성, 사법적 문제,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, 복잡한 세계 공급 사슬 등으로 인해 수산물 업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움을 설명함
- 행사 둘째 날에는 일본 수산청 Takashi Koya 국장이 참석하여 일본 2022년 수산업 백서에 포함된 지속가능성에 대해 발표함
 - Koya 국장은 일본 수산업이 지속가능 개발을 통한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본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, 그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고 출력 어선 도입 등을 소개함
 - 본 어선들은 오징어 채낚기(squid-jigging)이나 트롤(trawling) 등 여러 어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함
- 일본 정부는 또한 연어, 가리비, 진주, 방어, 감성돔 등 어종에 대한 대형 양식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
- 행사 마지막 날에는 토호 대학 환경과학과 Ayano Takeuchi 부교가 공간 관리를 통한 조업과 해안 풍력 발전을 공동 개발하기를 촉구하였음

※ 출처: SeafoodSource¹⁾

1) 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tsss-2022-focuses-lens-on-human-rights-and-de-carbonization-to-sustainability>

□ 감소하는 일본 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캠페인

- 일본 수산청이 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매달 3일부터 7일까지를 “사카나 데이(Sakana DAY)”로 정하였음
- 11월에 시작된 본 캠페인은 수백개의 소매업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세일 이벤트가 함께 진행됨
 - 일본 수산청은 본 행사가 일본에서 줄어가는 해양 생물의 소비를 다시 제고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힘
- 일본의 연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1인당 40.2 킬로그램이었으나, 이후 조금씩 줄어들었음
 - 2006년에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수산물 소비량을 제쳤음
 - 2007년 다시 수산물이 우위를 점하는 듯하였으나, 2008년 다시 육류에 순위를 빼앗긴 후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
 - 2020년 일본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3.4 킬로그램임
- 사카나(Sakana)는 일본어로 생선을 뜻함
 - 그리고 일본어로 3~7을 발음하면 “산 카라 나나(san kara nana)”이며, 이를 줄이면 “sa-ka-na”가 되어 일종의 말장난을 통한 작명이라고 함
- 현재 사카나 데이는 행사와 박람회를 열어 새로운 제품과 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628개 기업과 기관들의 활동으로 좋은 시작을 보이고 있음

※ 출처: SeafoodSource²⁾

2) 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foodservice-retail/japan-s-fisheries-agency-launches-fish-day-to-promote-seafood>

- 최근 가격을 책정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시사됨
-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9월 전년대비 평균 수산물 가격은 2.8퍼센트 상승하였음
 - 이는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같으며 돼지고기 및 야채 가격의 폭등으로 영향받은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인 8.8%보다는 현저히 낮은 지수임
 - 중국의 CPI는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년대비 2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주요 경제 산업의 인플레이션 레벨에 비해 낮음
 - 중국은 지속적으로 zero-COVID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경제적 역풍을 맞고 있음
 - 홍콩에서 수산물 수입업자인 Jack Yuan은 지난 해보다 2022년이 가장 어려웠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음
 - 중국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수산물 유통이 더욱 어려워 소비 감소 영향을 미쳤을 것
 - 중국의 정치적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야 경제 성장과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듯
 - 수출 부분의 경우 EU의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미국 시장의 경우 안정성을 유지하나 평년만큼 좋지는 않음
 - 원료값이 치솟고 있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높은 가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음
 - 그러나 미국의 편의점 등에서는 포장된 수산물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※ 출처: www.seafoodsource.com ³⁾

³⁾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supply-trade/latest-seafood-pricing-data-suggests-weak-demand-in-china>

- 새롭게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키틴질이 유력한 전기 자동차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임을 발견하였음
- 메릴랜드 대학의 랑빙 후 교수는 2022년 9월 과학 저널 “Matter”에 연구 보고서 “고비율 아연-금속 건전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키토산-아연 전해액”을 게재하였음
 - 키틴질은 게, 새우 및 바닷가재와 같은 갑각류의 탄산칼슘의 주요 재료임
 - 연구에 의하면 후 교수가 개발한 키틴질에서 나오는 키토산과 아연으로 제작된 배터리는 1,000번의 배터리 순환 후에도 99.7퍼센트의 에너지 효율을 보였음
 - 후 교수의 따르면, 배터리는 내부 연소 엔진 또는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배열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를 저장하여 전력망으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
 - 그러나 연구된 배터리의 주요 개선 사항은 배터리의 가격이 적절하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함
 - 많은 배터리가 생산되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
 - 키틴질은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가치를 증명하여 의학, 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음

※ 출처: www.seafoodsource.com ⁴⁾

4) 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study-shows-electric-car-batteries-can-be-powered-by-crustacean-byproduct>